

호코쿠지 절의 소개

호코쿠지 절은 1334년에 창건된 선종의 임제종(臨濟宗) 사원으로 정식 명칭은 고신잔호코쿠지(功臣山報國寺)입니다. 아시카가 가문의 충신이었던 우에스기 시게카네(1375년 사망)가 아시카가 이에토키(1284년 사망)의 혼을 모시기 위해 중국에서 불교의 선(禪)을 배웠던 일본의 승려 텐간 애코(1273~1335)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호코쿠지 절에 있는 대부분의 건조물이 무너졌으나, 이후 점차 옛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오늘날 호코쿠지 절은 대나무 숲이 있는 것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호코쿠지 절의 대나무 숲에는 약 2,000 그루의 맹종죽이 식재되어 있으며, 숲속에 말차 카페와 세월이 흘러 이끼가 긴 등롱이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당 뒤편에 조용히 자리한 대나무 숲은 애코가 말년에 좌선 수행을 하거나 시를 읊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규코안이라는 암자의 옛터에 조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호코쿠지 절 입구에 위치한 조용한 분위기의 이끼 정원에서는 석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사진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경내 곳곳에서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들로 다양한 빛깔의 경관을 연중 내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철쭉, 붓꽃이 피어납니다. 가을에는 은행잎이 선명한 노란빛으로 물들며, 겨울에는 동백꽃과 매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코쿠지 절은 과거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아시카가 가문을 모시고 있는 절 중 하나입니다. 이에토키의 손자인 아시카가 다카우지(1305~1358)가 1338년에 무로마치 막부의 초대 쇼군이 되면서, 1573년까지 아시카가 가문이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본당 뒤편에서 정원을 바라보듯 3개의 야구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야구라란,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직접 파서 만든 동굴을 말하며, 이에토키를 포함한 아시카가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이곳에 묻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당에는 호코쿠지 절의 본존인 50cm 높이의 석가여래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본당 옆 2층 건물 가쇼도에는 위층에 응접실, 아래층에 좌선 수행이나 불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며, 아래층에는 1347년에 제작된 승려 에코의 목조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